

## 국내 강원 지역 일반 대학생들의 장애 대학생들에 대한 교우기대감 비교 분석

이 창 대\*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김 정 란\*\*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

### 《 요 약 》

---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일반학생을 친구로 사귄 때와 장애학생을 친구로 사귀는 데에 있어 교우관계 양상이나 수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일반학생을 친구로 사귄 때의 교우기대감이 장애학생을 친구로 사귄 때 교우기대감보다 높았다. 둘째, 학년이 높은 집단의 경우 장애 수용 척도의 인식 영역에서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셋째, 성별에 따른 교우기대감의 차이는 없었다. 넷째, 장애 관련학과 전공의 학생의 경우 타 전공 학생보다 친구관계에서 외적인면 보다 내적인 면을 더 중요시 하는 양상을 보였고, 장애 수용의 정도가 높았다. 다섯째, 장애 수용 정도가 클수록 친구관계에서 외적인 면보다 내적인 면을 더 중요시 하는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장애 대학생과의 교우 관계를 개선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함께 식사 혹은 만남의 횟수 증가',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참여', '장애에 대한 교육', '함께 생활 혹은 같은 공간 주거' 순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 장애 대학생, 교우기대감, 사회적 통합

---

\* 제1 저자(changdae\_lee@yonsei.ac.kr)

\*\* 교신저자(rebirth79@yonsei.ac.kr)

## 1. 서론

청년기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다양한 탐색과정을 통해 진로 결정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기이다(안권순, 한건환, 2002). 현대사회에서는 청년기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연령대의 계층으로 학교를 졸업 후 직장을 구하기도 하며,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지는 시기로 인식한다(Birch, 1997). 통계청(2013)자료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2012년 기준 약 75%정도의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많은 수의 청년기 인구가 대학생 생활을 하고 있다.

대학이란 학문탐구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모습과 성격을 지닌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넓혀 나가는 곳이지만 특히 한국의 대학은 예비 사회인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강성구, 임경원, 2006). 또한 한국의 관계중심적인 사회구조로 인해 많은 연구들에서 인간관계의 형성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하고 있으며(박영신, 김의철, 2006; 장성숙, 2000), 좋지 않은 인간관계를 형성한 사람에게서 학업성취, 사회성, 자기조절에서의 효능감 등이 낮아지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였다(장우귀, 2005). 일반적으로 청년기 친구관계는 사회 정서적 지원과 서로에게 공평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는 발달적 양상을 보이며, 이 시기에 친구에 대한 애정과 만족감이 증가된다(고윤주, 이은해, Mendelson, 2002). 그리고 청년기의 친구관계는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친구에게서 받는 지원과 개인적 만족감은 대학생활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보냈느냐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강성구, 임경원, 2006).

하지만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과 친구관계를 형성하는데 제약이 있으며, 장애로 인해 기능적, 환경적, 학문적, 사회적 통합에 장벽이 발생한다(강성구, 임경원, 2006; Powell, Hyde, & Punch, 2014). 이러한 통합의 장벽에 따른 친구관계의 결핍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 대학생들은 외로움, 지루함, 낮은 자존감, 불안감, 또는 우울함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Carbery & Buhrmester, 1988).

또한, 일반학생들이 일반학생과 친구관계를 맺을 때와 장애학생과 친구관계를 맺을 때 심리적 속성과 양상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일반인에 대한 교우기대감과 장애인에 대한 교우기대감 수준과 양상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우기대감척도를 이용해 평가한 남경옥과 신현기(2012)의 연구에서 일반학생을 사귀다고 가정하였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심리적 속성들의 수준과 양상이 장애학생을 사귀다고 가정하였을 때와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장애학생에 대한 교우기대감이 일반학생에 대한 교우기대감보다 유의하게 낮았고,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교우기대감의 양상이 달라지며, 장애 수용성 정도가 큰 집단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교우

기대감의 친밀성 항목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와 같이 사회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친구관계 형성에 있어서 관계를 맺는 대상의 장애여부와 더불어 개인의 장애수용정도에 따라 교우기대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초·중·고등학생의 친구관계와 특성에 대한 것으로, 대학생의 친구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기의 장애학생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간 친구관계를 발달시키기 위한 연구는 여러 방면으로 수행되었지만(류경숙, 김영일, 2005; 방명애, 임대섭, 2007; 이동현, 박지연, 2011), 실질적으로 사회로 나아가기 직전의 대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대학생들의 일반인과 장애인에 대한 교우기대감의 차이를 알아보고, 배경 변인별, 장애 수용정도에 따라 교우기대감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일반 대학생들의 일반학생에 대한 교우기대감과 장애학생에 대한 교우기대감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둘째, 배경 변인별(학년별, 성별, 장애에 대한 이해정도)에 따라 장애학생에 대하여 갖는 교우기대감과 장애학생을 수용하는 정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셋째,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정도에 따라서 교우기대감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넷째, 장애 대학생과의 교우관계를 개선시켜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4년 5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강원도에 소재하는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502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본인에게 동의서를 받아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에 직접 배포 및 회수하는 방법을 통해 조사하였다. 총 502부의 설문지 중에서 표기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끝까지 설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26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76부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장애에 대한 이해를 보기위해 장애와 관련한 전공(작업치료학, 물리치료학)과 장애와 관련 없는 전공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자 476명 중에서 장애관련 전공은 235명(49.4%), 장애 관련 없는 전공은 241명(50.6%)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성별은 여자가 288명(60.5%)로 많았다. 학년은 1학년 91명(19.1%), 2학년 138명(29.0%), 3학년 160명(33.6%), 4학년 87명(18.3%)이었으며,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1.03 \pm 2.15$ 세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명(%)

구분		장애와 관련한 전공 n=235	타 전공 n=241	전체 n=476
성별	남	94(19.7)	94(19.7)	188(39.5)
	여	141(29.6)	147(30.9)	288(60.5)
학년	1	41(8.6)	50(10.5)	91(19.1)
	2	74(15.5)	64(13.4)	138(29.0)
	3	78(16.4)	82(17.2)	160(33.6)
	4	42(8.8)	45(9.5)	87(18.3)
나이		$21.14 \pm 2.24$	$20.91 \pm 2.06$	$21.03 \pm 2.15$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1) 연구 동의서, (2) 응답자의 일반적 정보(5문항), (3) 교우기대감척도(21문항), (4) 장애학생 수용성척도(23문항), (5) 장애학생과 교우 관계 개선 방안(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교우기대감척도와 장애학생 수용성척도는 남경옥과 신현기(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연구 동의서와 일반적 정보 및 장애학생과 교우관계를 개선 방안은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장애학생과 교우 관계 개선 방안은 대상자가 장애학생과 교우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 1) 교우기대감척도

교우기대감척도는 비 장애학생 교우기대감척도와 장애학생 교우기대감척도로 나누어진다. 비 장애학생 교우기대감척도는 내 친구가 비장애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를 기준으로 교우기대감을 측정하며, 장애학생 교우기대감척도는 내 친구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를 기준으로 교우기대감을 측정한다. 하위 영역은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친밀성(9 문항), 능력/유사성(7 문항), 도덕성(5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져있고, 5점 Likert척도로 ('전혀 중요하지 않음'=1, '중요하지 않음'=2, '보통'=3, '약간 중요함'=4, '매우 중요함'=5) 총 점수는 최소 21점, 최대 105점이다<표 2>. 본 연구의 설문지는 남경

욱과 신현기(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 중 대학생들의 생활에 맞지 않는 능력/유사성 영역의 문항들을 대학생의 생활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게임이나 공부 등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미생활이나 공부 등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로, ‘운동이나 싸움을 잘해야 한다.’는 ‘발표를 잘해야 한다.’로 수정하였다. 또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야 한다.’는 ‘선후배,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야 한다.’로, ‘음악이나 미술 등에 재주가 있어야 한다.’는 ‘나와 같은 모임이나 동아리에서 활동해야 한다.’로 ‘좋아하는 게임이나 운동, 취미가 같아야 한다.’는 ‘운동, 취미, 여가가 같아야 한다.’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 자료를 통한 비 장애학생 대상 Cronbach’s  $\alpha$  값은 .836, 장애학생 대상 Cronbach’s  $\alpha$  값은 .819이었다.

<표 2> 교우기대감 척도

영역	번호	문항
친밀성 (9문항)	1	내 친구는 항상 약속을 잘 지켜야한다
	4	내 친구는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7	내 친구는 나를 진정으로 좋아해야 한다.
	10	내 친구는 내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도와주어야 한다.
	13	내 친구는 나와서 비밀을 잘 지켜주어야 한다.
	15	내 친구와 나는 서로 관심을 갖고 챙겨주어야 한다.
	17	내 친구는 나의 잘못된 점은 얘기해서 고쳐주려고 애써야 한다.
	19	내 친구는 내가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감싸주어야 한다.
	21	내 친구는 항상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어야 한다.
능력/ 유사성 (7문항)	2	내 친구와 나는 취미 생활이나 공부 등을 함께 할 수 있어야한다.
	5	내 친구는 발표를 잘해야 한다.
	8	내 친구는 선후배,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야 한다.
	11	내 친구는 나와 같은 모임이나 동아리에서 활동해야 한다.
	14	내 친구와 나는 키나 잘생긴(이쁜) 정도가 서로 비슷해야 한다.
	18	내 친구와 나는 좋아하는 운동, 취미, 여가가 같아야 한다.
도덕성 (5문항)	20	내 친구와 나는 가정환경이나 공부를 잘하는 정도가 비슷해야 한다.
	3	내 친구는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6	내 친구는 마음씨가 착해야 한다.
	9	내 친구는 항상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12	내 친구는 항상 성실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16	내 친구는 다른 사람에게 고운 말을 해야 한다.	

2) 장애학생 수용성 척도

장애학생 수용성 척도는 대상자가 얼마나 장애인을 잘 수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장애 수용정도에 따른 교우기대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하였고, 또한 교우기대감이 장애 수용정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사전 연구(남경옥, 신현기, 2012)의 결과를 토대로 각 배경 변인별(학년별, 성별, 장애에 대한 이해정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Voeltz(1982)가 개발한 Acceptance Scale(A-Scale)을 김보영(2003)이 수정한 것을 대학생에게 맞게 재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하위 영역은 크게 인식(14 문항)과 태도(9 문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태도 영역은 다시 학습영역(3 문항), 생활영역(6 문항)으로 나누어진다.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져있고 4점 Likert척도로('전혀 아니다'=0, '아니다'=1, '그렇다'=2, '매우 그렇다'=3) 총 점수는 최소 0점, 최대 69점이다<표 3>. 본 연구 조사를 통한 Cronbach's  $\alpha$  값은 .759이었다.

<표 3> 장애학생 수용성 척도

영역	번호	문항	
인식 (14문항)	1	장애에 대해 듣고 배운 적이 있음.	
	2	장애가 무엇이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앎.	
	3	장애 친구와 같은 조가 되어도 좋음.	
	4	장애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 함.	
	5	장애 친구가 평소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함.	
	6	장애 친구도 OT나 MT, 여행에 가야 한다고 생각함	
	7	장애 친구와 같은 스터디에서 공부해도 무방함.	
	8	장애 친구도 열심히 배우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함.	
	9	학교에 오고 갈 때 장애 친구와 함께 다니고 있음.	
	10	나는 장애 친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음.	
	11	내 생일에 장애 친구를 초대할 것임	
	12*	장애 친구가 불쌍하다고 생각함	
	13*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장애 친구를 돕지 못한 적이 있음.	
	14*	장애 친구는 우리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함.	
태도 (9문항)	학습	15	장애 친구를 도와서 공부를 한 적이 있음.
		16*	장애 친구 때문에 공부에 방해된 적이 있음.
		17*	장애 친구 때문에 선생님께 야단을 맞은 적이 있음.
	생활	18	나는 장애 친구를 만나면 인사를 함.
		19	지적장애 친구에게 내 물건을 빌려주거나 자료를 준 적이 있음.
		20	장애 친구와 같이 점심을 먹은 적이 있음.
		21	나는 다른 친구가 장애 친구를 놀리면 하지 말라고 말함.
		22*	장애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 당황하게 됨.
		23*	장애 친구를 놀리거나 속인 적이 있음.

\* : 역 채점 문항

### 3) 장애학생과 교우 관계 개선 방안

본 설문지는 일반학생들이 장애학생과의 교우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장애에 대한 교육’, ‘함께 생활 혹은 같은 공간 주거’, ‘함께 식사 혹은 만남의 횟수 증가’,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참여’ 로 구성되었으며, ‘기타’ 항목을 추가하여 다른 의견을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문항은 객관식으로 중복응답이 가능하였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집단별(장애학생에 대한 수용정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연구 문제인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에 대한 교우기대감 차이 비교를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일원 배치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학년별 교우기대감과 장애 수용척도 차이비교를 하였고,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여 성별, 장애에 대한 이해에 따른 교우기대감과 장애수용척도 차이를 비교하였고, 세 번째 연구문제인 장애 수용정도에 따른 교우기대감 차이 비교를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였다. 네 번째 연구문제인 장애학생과의 교우관계 개선 방안 설문지에 대한 결과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 III. 연구결과

### 1.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에 대한 교우기대감의 차이

일반 대학생들의 교우기대감의 양상과 수준이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전체점수와 세 하위 영역의 평균점수에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우기대감의 경우 친밀성(3.71점), 도덕성(3.23점)영역과 전체점수(3.10점)에서 ‘보통(3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보였고, 능력/유사성(2.23점)영역에서는 ‘중요하지 않음(2점)’을 약간 초과하는 점수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우기대감의 경우 친밀성(2.51점)영역은 ‘중요하지 않음’을 초과하는 점수, 능력/유사성(1.99점)영역은 ‘중요하지 않음(2점)’의 점수, 도덕성(3.20점)은 일반학생을 대상 교우기대감과 같은 수준인 ‘보통(3점)’을 약간 초과하는 점수로, 전체점수

(2.93점)는 ‘보통(3점)’정도 수준의 점수로 나타났다. 두 교우기대감의 점수를 비교했을 때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우기대감에서 도덕성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위영역과 전체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p<.001$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에 대한 교우기대감 차이비교

구분	일반학생 대상 M±SD	장애학생 대상 M±SD	t	p
친밀성	3.71±0.50	2.51±0.55	12.540	.00***
능력/유사성	2.23±0.56	1.99±0.56	12.914	.00***
도덕성	3.23±0.65	3.20±0.69	1.438	.15
전체	3.10±0.42	2.93±0.41	14.458	.00***

\*  $p<.05$ , \*\*  $p<.01$ , \*\*\*  $p<.001$

## 2. 배경 변인별(학년별, 성별, 장애에 대한 이해정도)에 따른 교우기대감과 장애 수용정도의 차이

### 1) 학년별에 따른 교우기대감과 장애 수용정도의 차이

일반학생에 대한 교우기대감의 도덕성 영역에서 1학년 3.25점, 2학년 3.15점, 3학년 3.19점, 4학년 3.42점으로 모두 ‘보통(3점)’을 초과하는 수준의 점수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도덕성의 영역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

장애 수용 척도의 인식영역에서는 1학년 1.70점, 2학년 1.72점, 3학년 1.74점, 4학년 1.83점으로 ‘그렇다(2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장애 학생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1$ ).

장애학생에 대한 교우기대감의 친밀성 영역에서는 1학년 3.61점, 2학년 3.39점, 3학년 3.57점, 4학년 3.47점으로 모두 ‘보통(3점)’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의 점수였으며, 학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1$ ). 도덕성영역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도덕성의 영역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 5>.



<표 5> 학년별에 따른 교우기대감과 장애 수용정도 차이

구분		학년별				p	
		1(n=91)	2(n=138)	3(n=160)	4(n=87)		
		M±SD	M±SD	M±SD	M±SD		
일반학생대상 교우기대감 척도	친밀성	3.77±0.52	3.63±0.46	3.75±0.49	3.68±0.52	.11	
	능력/유사성	2.25±0.59	2.22±0.54	2.25±0.52	2.22±0.61	.94	
	도덕성	3.25±0.61	3.15±0.68	3.19±0.62	3.42±0.64	.01*	
	총점	3.14±0.43	3.05±0.42	3.12±0.42	3.13±0.43	.30	
장애 수용 척도	인식	1.70±0.27	1.72±0.26	1.74±0.25	1.83±0.33	.01**	
	태도	학습	1.86±0.41	1.86±0.43	1.93±0.37	1.95±0.36	.24
		생활	1.72±0.40	1.80±0.39	1.74±0.39	1.76±0.47	.53
		전체	1.59±0.30	1.64±0.31	1.63±0.29	1.64±0.32	.66
	전체	1.66±0.25	1.69±0.24	1.69±0.23	1.75±0.29	.08	
장애학생 대상 교우기대감 척도	친밀성	3.61±0.78	3.39±0.47	3.57±0.55	3.47±0.58	.01**	
	능력/유사성	2.06±0.55	1.96±0.55	1.98±0.53	1.98±0.65	.61	
	도덕성	3.17±0.64	3.16±0.68	3.17±0.69	3.37±0.72	.09	
	전체	2.99±0.41	2.86±0.36	2.94±0.42	2.95±0.47	.10	

\* p<.05, \*\* p<.01, \*\*\* p<.001

## 2) 성별에 따른 교우기대감과 장애 수용정도의 차이

성별에 따른 일반학생에 대한 교우기대감을 보면 친밀성 영역(p<.001)과 전체 점수(p<.01)에서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친밀성 영역에서 남자 3.56점, 여자 3.80점으로 모두 '보통'을 초과하여 '약간 중요함(4점)'에 가깝게 응답하였고, 여자에서 그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여학생이 친구를 사귄 때 친밀성을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점수에서는 남자 3.04점, 여자 3.15점으로 모두 '보통(3점)'을 약간 초과한 점수였다.

장애 수용정도를 비교하였을 때에는 여자의 장애 수용정도가 모든 항목과 전체 점수에서 남자보다 같거나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별 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에 대한 교우기대감에서는 친밀성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남자 3.37점, 여자 3.60점으로 모두 '보통(3점)'과 '약간 중요함(4점)'사이 수준의 점수로 나타났으며, 일반학생에 대한 교우기대감척도의 결과와 같이 여학생 집단에서 친구를 사귄 때 친밀성을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성별에 따른 교우기대감과 장애 수용정도 차이

구분		성별		p	
		남(n=188)	여(n=288)		
		M±SD	M±SD		
일반학생대상 교우기대감 척도	친밀성	3.56±0.54	3.80±0.44	.00***	
	능력/유사성	2.25±0.61	2.23±0.52	.70	
	도덕성	3.20±0.73	3.25±0.59	.44	
	총점	3.04±0.50	3.15±0.36	.01**	
장애 수용 척도	인식	1.74±0.28	1.74±0.28	.98	
	태도	학습	1.88±0.41	1.92±0.38	.30
		생활	1.73±0.41	1.78±0.41	.24
		전체	1.60±0.30	1.64±0.30	.18
전체	1.69±0.25	1.70±0.25	.51		
장애학생대상 교우기대감 척도	친밀성	3.37±0.57	3.60±0.51	.00***	
	능력/유사성	2.02±0.63	1.97±0.51	.30	
	도덕성	3.20±0.78	3.20±0.61	.97	
	전체	2.88±0.48	2.96±0.36	.05	

\* p<.05, \*\* p<.01, \*\*\* p<.001

### 3) 장애에 대한 이해에 따른 교우기대감과 장애 수용정도의 차이

장애에 대한 이해에 따른 교우기대감과 장애수용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장애 관련학과 전공 학생과 타 전공 학생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장애 관련학과 학생들의 교우기대감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장애 관련학과 학생들의 일반학생, 장애학생에 대한 교우기대감의 친밀성과 도덕성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5).

장애 수용정도를 비교한 결과, 태도-학습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과 전체 점수에서 장애 관련학과 전공 학생들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5). <표 7>.

<표 7> 장애에 대한 이해에 따른 교우기대감과 장애 수용정도 차이

구분		장애 관련학과	타 전공	p	
		전공 (n=235) M±SD	(n=241) M±SD		
일반학생대상	친밀성	3.77±0.47	3.64±0.51	.00**	
	능력/유사성	2.22±0.55	2.25±0.56	.49	
교우기대감 척도	도덕성	3.29±0.64	3.17±0.65	.04*	
	전체	3.14±0.42	3.07±0.43	.06	
장애 수용 척도	인식	1.81±0.28	1.68±0.25	.00***	
	태도	학습	1.92±0.40	1.89±0.39	.33
		생활	1.80±0.40	1.71±0.41	.02*
		전체	1.66±0.30	1.59±0.31	.02*
	전체	1.75±0.25	1.64±0.24	.00***	
	장애학생대상	친밀성	3.57±0.52	3.45±0.57	.02*
능력/유사성		1.95±0.56	2.02±0.56	.18	
교우기대감 척도	도덕성	3.29±0.65	3.12±0.71	.01**	
	전체	2.96±0.40	2.89±0.42	.07	

\* p<.05, \*\* p<.01, \*\*\* p<.001

### 3. 장애 수용정도에 따른 교우기대감 차이

장애 수용정도에 따른 교우기대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대상자 중에서 장애 수용 척도의 총점을 기준으로 하위 20%(16~37점)에 해당하는 저 수용 학생 95명과 상위 20%(48~70점)에 해당하는 고 수용 학생 95명을 다음과 같이 두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의 남녀 성별 비(1:1.5)를 고려했을 때 저 수용 집단에서 여학생의 수는 남학생의 수의 1.5배보다 적고(1:1.4), 고 수용 집단에서 여학생의 수는 남학생의 수의 1.5배보다 많았다(1:1.8). 즉, 장애 수용정도가 높은 집단의 여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표 8>.

<표 8> 장애학생 수용정도에 따른 학년별, 성별 구성

구분	저 수용(n=95)		고 수용(n=95)	
	남(n=40)	여(n=55)	남(n=34)	여(n=61)
1 학년	7	13	4	8
2 학년	14	16	13	10
3 학년	9	19	9	21
4 학년	10	7	8	22

장애 수용정도를 달리하는 두 집단 간 교우기대감을 비교했을 때 일반학생, 장애학생대상 교우기대감척도의 친밀성 영역과 능력/유사성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의 결과를 보였다. 고 수용집단은 친밀성 영역에서 저 수용 집단보다 두 교우기대감 척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p<.05$ ), 능력/유사성 영역에서는 저 수용 집단보다 두 교우기대감 척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p<.001$ ). 즉, 고 수용 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일반 친구 혹은 장애인 친구를 사귄 때 저 수용 집단에 속한 학생들에 비해 친밀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반면, 능력/유사성에 대해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표 9> 장애 수용정도에 따른 교우기대감 차이

구분		저 수용	고 수용	t
		M±SD	M±SD	
일반학생대상 교우기대감 척도	친밀성	3.58±0.53	3.76±0.52	.02*
	능력/유사성	2.31±0.57	1.97±0.53	.00***
	도덕성	3.08±0.76	3.27±0.75	.08
	전체	3.04±0.46	3.04±0.46	.92
장애학생대상 교우기대감 척도	친밀성	3.35±0.58	3.61±0.58	.00**
	능력/유사성	2.09±0.59	1.74±0.51	.00***
	도덕성	3.03±0.80	3.24±0.84	.07
	전체	2.85±0.45	2.90±0.45	.45

\*  $p<.05$ , \*\*  $p<.01$ , \*\*\*  $p<.001$

#### 4. 장애학생과의 교우관계 개선 방안

장애 대학생과의 교우관계를 개선시켜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은 ‘함께 식사 혹은 만남의 횟수 증가(40.6%)’,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참여(29.7%)’, ‘장애에 대한 교육(19.2%)’, ‘함께 생활 혹은 같은 공간 주거(9.6%)’, ‘기타(0.9%)’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0>.

<표 10> 장애 학생과의 교우관계 개선 방안(중복응답 가능)

구분	빈도(명)	비율(%)
장애에 대한 교육	129	19.2
함께 생활 혹은 같은 공간 주거	65	9.6
함께 식사 혹은 만남의 횟수 증가	273	40.6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참여	200	29.7
기타	6	0.9

#### 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상에 따라, 학년별, 성별, 장애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에 대한 교우기대감과 장애 수용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일반대학생들의 장애 수용 정도를 고 수용집단과 저 수용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 간의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에 대한 교우기대감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장애 대학생들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교우관계를 개선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첫째 일반 대학생들이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에 대한 교우기대감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장애학생보다 일반학생에 대한 교우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도덕성 영역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일반 대학생들이 일반학생과 교우관계를 형성할 때 심리적 속성(친밀성, 능력/유사성)에 대한 기대가 더 높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존재로서 지각하여 서로 평등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교우기대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장애 대학생과 일반 대학생의 친구관계에 대한 지각 차이가 장애학생과의 교우관계를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강성구, 임경원, 2006). 일반적으로 대학생 시기에는 성인에게 의존적이었던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과 평등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는 경향이 증가한다(고윤주, 이은혜, Mendelson, 2001; 이은혜, 고윤주, 오원정, 2000). 하지만 일반 대학생들이 장애학생과 교우관계를 형성할 때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의존적 존재로 인식하여 교우기대감이 낮은 경우 서로 평등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 한다고 여길 수 있다.

둘째, 배경 변인별(학년별, 성별, 장애에 대한 이해정도)에 따라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에 대한 교우기대감과 장애 수용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을 때, 학년이 높아질수록 도덕성 영역의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대상에 관계없이 도덕성과 같은 내재적 요인들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점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접촉이나 근접성보다는 애정이나 서로의 감정과 같은 내재적 요인들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된다는 친구관계의 발달적 특성의 이론들(Bigelow, 1977; Selman, 1981)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기존의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친구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일회성 만남이 아닌 일상생활 속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새로운 친구들과 마음에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친밀성과 도덕성에 대한 교우기대감이 높아진다(이용교, 1992). 하지만 이 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본 연구의 경우 대상자들의 학년별 나이는 남녀 모두 유의하게 다른 차이를 보였고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나이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대학생의 경우 병역 문제, 휴학, 편입, 또래들보다 늦게 입학 등의 이유로 학년별로 나이차가 다르며 같은 학년이어도 나이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년에 따른 결과를 해석할 때는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학년에 따른 장애 수용 척도의 결과를 보면 인식영역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나이와 학력이 높아질수록 장애 수용 정도가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박은영, 남수정, 2013; 송진영, 2012).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교우기대감과 장애수용정도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교우기대감 중 친밀성 영역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것은 여학생이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남자보다 친밀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이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밀성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결과들(백경임, 서동인, 1993; McDougall, & Hymel, 2007)이 많은 반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친밀성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결과(Bank, & Hansford, 2000)와 남성이 여성보다 친밀감을 더 중요시 여긴다(강성구, 임경원, 2006)는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는 조심스럽게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학생 대상 교우기대감의 전체 점수에서도 여학생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장애학생 대상 교우기대감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여학생의 점수가 높았다. 이는 여학생이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 심리적 속성의 수준이 남학생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장애 수용 정도를 비교하였을 때에는 성별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성별 간 평균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여학생의 장애 수용정도가 남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장애를 더 잘 수용한다는 선행 연구들로 일치한 결과이다(Nicholls, 2012; 김영성, 1999; 이양섭, 1995; Siperstein, Buddoff, & Bak, 1980). 그리고 장애에 대한 이해정도에 따른 교우기대감을 비교해 본 결과를 통해서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서 능력/유사성과 같은 외면적인 요소들보다 친밀성과 도덕성과 같은 내면적인 요인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준수와 박미은(2013)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알아본 연구에서 일반학생들의 자원봉사동아리 가입과 활동 여부, 장애 관련학과 전공 여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그리고 장애수용정도에 있어서도 장애 관련 전공학생들이 점수가 학습 소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것은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장애학생을 더 잘 수용한다는 의미이다. 이 결과는 장애와 관련한 교과목 이수한 학생과 장애관련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장애인 수용정도가 높았다는 송수지와 김정민(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세 번째, 장애 수용정도에 따른 교우기대감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장애학생을 더 잘 수용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친구를 사귄 때 능력/유사성과 같은 외면적 요소들보다 친밀성과 도덕성과 같은 내면적인 요소들을 더 중요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지적장애학생 수용정도에 따른 교우기대감의 차이를 알아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남경옥, 신현기, 2012).

넷째, 장애 대학생과의 교우관계 개선방안에 대한 결과를 볼 때, 장애학생에 대한 실제적 경험을 하고 또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활동을 위해서는 접촉의 경험이 중요하며(강성구, 임경원, 2006), 장애인들과의 접촉이 장애인과의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고(김상학, 2004; 강성구, 임경원, 2006에서 재인용), 인식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강성구, 2005)는 연구들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본 설문지의 한계점으로 설문지가 '장애에 대한 교육'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이 장애학생과의 접촉을 전제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접촉을 통한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는 방법이 다른 비 접촉을 통하여 교우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과 제대로 된 비교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결과의 수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Voltz(1980: 강성구, 임경원, 2006에서 재인용)는 장애인과의 접촉이 반드시 긍정적인 태도를 수반하게 되지는 않다고 하였는데, 장애인과의 단순한 접촉경험일 경우에는 이전에 형성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거나 더 부정적인태도를 갖게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단순한 물리적 접촉만으로는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지 못하고(서미경, 김정남, 이민규, 2010),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구조화된 활동이 필요하고(강성구, 2005)와 대학생 수준의 문화 캠프 활동, 동아리 활동, MT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연구(윤현숙과 전병진, 2013)를 토대로 접촉을 통한 장애학생과의 교우개선 방안을 계획할 때는 단순한 물리적 신체적인 접촉이 아닌, 접촉의 질을 고려한 구조화된 활동이 포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에 대한 교육 항목이 19.2%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장애인 수용도가 높았던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장애에 대한 이해도는 장애인과의 교우관계를 개선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양상과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중요시하는 심리적 속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최초의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일반대학생의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에 대한 교우기대감에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배경 변인별(학년별, 성별, 장애에 대한 이해정도), 장애 수용정도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장애 대학생과의 교우관계에 관해서는 많은 수의 대상자가 만남의 횟수를 증가시키고,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때 교우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현재까지 대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점을 생각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장애 대학생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향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발견된 몇 가지 제한점은 앞에 말했다시피 대학생은 학년과 나이가 꼭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하게 나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결과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가 강원도 지역 소재의 대학들로 국한하여 국내 전체 대학생의 교우기대감과 장애 수용 정도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타 전공 학생의 경우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각 전공마다 대상자의 수가 달라 특정 전공학생들이 가지고 있을 내재적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특성(지역, 전공 등)을 반영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학생과 교우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들과 더불어 장애학생들과의 교우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일반 대학생들의 일반 대학생과 장애 대학생에 대한 교우 기대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그러한 차이가 실제 장애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성구. (2005). 생활도우미활동이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 학생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연구**, 12(2), 133-160.
- 강성구, 임경원. (2006). 장애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친구관계: 친구의 지원, 갈등해결전략 및 만족감. **특수교육연구**, 13(2), 209-230.
- 고윤주, 이은혜, Mendelson, M. J. (2002).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친구관계 비교 연구: 친구의 지원, 갈등 해결 방식 및 친구관계망.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5(1), 1-18.
- 고윤주, 이은혜, Mendelson, M. J. (2001). 친구에 대한 만족감을 예언하는 친구의 지원, 갈등해결방식 및 친구 관계망간의 구조모델: 청년 초기, 중기, 후기 비교.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4(3), 25-42.
- 김보영. (2003). 부분통합교육을 받는 정신지체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인식 및 태도 특성.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상학. (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7(4), 169-206.
- 김영성. (1999). 통합교육에 따른 일반학급 아동의 특수학급 아동에 대한 수용태도.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남경숙, 신현기. (2012). 통합학급 내 일반학생들의 지적장애학생에 대한 교우기대감 (Friendship Expectation) 연구. **지적장애 연구**, 14(2), 47-74.



- 류경숙, 김영일. (2005). 장애이해 프로그램이 일반 중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40(1), 321-337.
- 방명애, 임대섭. (2007). 장애체험활동 후 “또래인터뷰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이 장애학생에 대한 비장애 초등학생의 수용성 태도와 활동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 11(1), 61-78.
- 박영신, 김의철. (2006).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12(1), 161-195.
- 박은영, 남수정. (2013). 청장년층 장애인의 장애수용에 대한 사회인구적 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장애와 고용**, 23(3), 135-151.
- 백경임, 서동인. (1993).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친구관계. **한국청소년개발원**, 15, 45-63.
- 서미경, 김정남, 이민규. (2010). 정신장애의 원인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와 친숙함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건강**, 15(1), 123-141.
- 송수지, 김정민. (2008). 대학생의 장애인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9(1), 83-99.
- 안권순, 한건환. (2002). 청년기의 개인 특성, 성 역할 정체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3(2), 73-102.
- 윤현숙, 전병진. (2013). 장애 대학생과 친구되기(Buddy)에 대한 비장애대학생 태도에 관한 연구: A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14(3), 133-148.
- 이동현, 박지연. (2011). 장애이해교육을 포함한 국어과 협력교수가 장애학생에 대한 비장애 학생의 태도와 학급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 10(3), 197-217.
- 이양섭. (1995). 정신지체 아동에 대한 일반학급 아동의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구.
- 이은혜, 고윤주, 오원정. (2000). 청소년기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지원 및 갈등해결.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3(3), 105-121.
- 장성숙. (2000). 현실역동상담: 한국인의 특성에 적합한 상담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17-32.
- 장우귀. (2005). 역기능 가정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성발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인천.
- 정준수, 박미은. (2013). 대학생들이 지각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재활복지**, 17(2), 253-277.
- 통계청.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서울, 한국: 통계청
- Bank, B. J., & Hansford, S. L. (2000). Gender and friendship: Why are men's best same-sex friendships less intimate and supportive?. *Personal Relationships*, 7(1), 63-78.
- Bigelow, B. J. (1977). Children's friendship expectations: A cognitive-developmental study. *Child Development*, 246-253. doi: 10.2307/1128905
- Birch, A. (1997). *Developmental psychology: From infancy to adulthood*. Macmillan.

- Carbery, J., & Buhrmester, D. (1988). Friendship and need fulfilment during three phases of young adulthood.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15, 393-409.
- McDougall, P., & Hymel, S. (2007). Same-gender versus cross-gender friendship conceptions: Similar or different?. *Merrill-Palmer Quarterly*, 53(3), 347-380.
- Nicholls, E., Lehan, T., Plaza, S. L. O., Deng, X., Romero, J. L. P., Pizarro, J. A. A., & Carlos Arango-Lasprilla, J. (2012). Factors influencing acceptance of disability in individuals with spinal cord injury in Neiva, Colombia, South America.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34(13), 1082-1088.
- Powell, D., Hyde, M., & Punch, R. (2014). Inclusion in Postsecondary Institutions With Small Numbers of Deaf and Hard-of-Hearing Students: Highlights and Challenges.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19(1), 126-140.
- Selman, R. L. (1981). 9 The child as a friendship philosopher.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friendships*, 2, 242.
- Siperstein, G. N., Buddoff, M., & Bak, J. J. (1980). Effects of the labels "mentally retarded" and "retard" on the social acceptability of mentally retarded children.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84(6), 596-601.
- Voeltz, L. M. (1982). Effects fo structured interactions with severely handicapped peers on children's attitudes.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86, 380-390.

## Comparative Analysis on Friendship expectation of College students toward student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Lee, Chang Dae**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Kim, Jung Ran**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Yonsei University

### <Abstract>

The number of young adult attend college in Korea. In case of yond adult who has disabilities, however, are having a hard time in making friend because of negative awareness of person who has a disabilities, due to disabilities, there are barriers on functional, environmental, academical, and social integ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when normal college student make their friend, how differences are existed toward between normal student and student with disabilities on aspects and level of friendship expectation. Futhermore, we figured up the way to socially integrate student with disabilities. From the study, there were differences on friendship expectation and the level of awareness toward disability when normal college student make their friend as normal student and student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the differences were existed depending on their major. Finally, the author discussed about aspects and level of friendship when students make their friend as student with disabilities, also discussed about the way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of student with disabilities.

**Key Words :** Student with disabilities, Friendship expectation, Social integration

---

논문 접수: 2014. 10. 23 심사 시작: 2014. 11. 10 게재 확정: 2015. 03. 11